

## 추억의 합격기

1982년도 제24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전체 5등)

# 또 다시 한 후를 넘기면서



박병무

### 『학력사항』

- 1980년 대일고등학교졸업
- 1980년 전국 예비고사 수석
- 1980년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입학 및 수석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1988년 연세대학교 MBA과정 졸업
- 199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졸업

### 『경력사항』

- VIG Partners 대표
- 보고펀드 공동대표
-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로커스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재정경제원 통상지원반 고문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전체 5등)

## I. 서곡

오랜만에 나는 Wagner의 Tanhauser 서곡을 틀어 놓고, 해묵은 일기장을 뒤적거렸다. 대학 4년의 생활을 통해 내 자신이 너무도 바뀌어 버려 지난 생활을 조금씩 반추하기란 아무런 단서 없이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지난 4년은 諸行無常이란 어구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는 데에서 그 생활이 바뀌어 왔던 것 같다. 虛無主義, 感傷的 浪漫主義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또한 요즈음 대학가에 대한 심심치 않은 보도를 들으면서 불안하게나마 세워왔던 나의 기준에 조명을 하여 보며..., 내가 1, 2학년때 즐겨 들던 Tanhauser가 점차 Coda를 향해 연주되어 가면서 지난 일들이 기억속에 새로이 명멸한다.

## II. 베아트리체는 내 마음에 영원한 그리움으로 안착

대학마다 본고사를 보았던 그해 나는 豫備考査와 本考査를 다 치룬 후에 조용히 집에서, 대학이란 이상적인 곳 과량새와 같은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속에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있었지만 그 꿈은 이내 깨지고 말았다. 1980년 늦은 1월 서울大 首席入學이란 기분 나쁘지 않은 선물을 들고 記者들이 새벽에 들이닥쳐다. 며칠 동안은 마치 내가 상품이나 된듯 이리저리 끌려다녀 정신이 없었다. 그해는 과외가 유난히도 극성이었던지 언론매체마다 유별나게 보도하고, 好事多魔랄까 몇 개월 후에는 이 일로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집안에 있어났으니 지금 생각하기엔 씁쓸한 맛이 든다.

아직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지만 300여통이 나 되는 격려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입학전까지는 자신을 돌아 볼 겨를도 없이 지낸 듯하다.

부푼 기대와 꿈, 즉 世界와 社會가 마치 나 자신을 위해서만 存在한다는 막연한 환상속에 첫발을 내디딘 대학은 나에게 그때까지 맞보지 못한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대학이란 사회가 어느 것도 나에게 능동적으로 안겨다주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과 함께 거대한 自律의 물결 한 가운데 극히 微小하게 내가 被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소박한 英雄主義에 사로 잡혀온 나는 그때부터 自我를 발견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내가 그렇게 열망해 왔던 法大에 내 자신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기억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세워왔던 보잘 것 없는 價値觀과 善에 대한 기준이, 비참할 정도로 하잘 것 없는 것이었음을 당시 같은 학년으로 들어왔던 復學生 형님과 술 좌석에서 빠져리게 느꼈다. 당시 학교전체는 병영집체훈련의 참여여부를 놓고 그것을 거부하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의 생각은 그 名分이야 어떠했든 그리고 그것이 民主化란 窮極的 目的과 어느 정도로 결부되었든 集體訓練을 받는 것이 일을 크게 그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들이 운집한 소위 학생회에서 토론내용은 거부 일색이었다. 나는 과연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집체훈련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혀 開陣되지않는 토론은 결코 民主라는 구호아래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信念아래 크게 용기를 내어 찬성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밀려오는 엄청난 非難과 抗議는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信念으로 계속 주장을 펴나갔고, 그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어져 갈 때 앞에서 언급한 복학생 형님께서 나를 두둔하면서 토론은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 그 형이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네 생각은 發展主義史觀에 비친 견해야! 물론 그 회의가 民主主義方式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나의 價値觀이 얼마나 획일적이었는 가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 일이 있은 후 학과 공부는 거의 도외시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가며, Club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서적을 소화하려 했다. 이 때는 대학 초년생에게 당연하던, meeting이나 사랑도 내 안중에 없었다. 그러나 날로 극심해 가는 Demo로 인해 내 價値觀의 정립은 점점 요원해져 갔다. 마침내 5.17로 치닫게 되는 光景을 지켜보던 어린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함 뿐이었다.

歷史의 章을 하나 넘기면서 나는 처음으로 근 4개월에 이르는 休校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 그때까지 정신없이 몰두하던 거시적인 가치관정립을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였으나 허전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마도 2학년때까지 나를 몹시도 괴롭혔던 ‘죽음에 이르는 병’ 즉 悲觀主義 虛無主義가 이즈음부터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젊은이고 거치는 青春期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지만, 休校가 시작되면서 우선 英語와 獨語공부를 하며 꾸준히 club 친구들과 책을 읽어나갔고 Tennis에 미치기도 했으며 시간이 생길 때면 대학입시 동안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Violin을 켜기도 했다. 同期들끼리 碧潭이란 Circle을 조직해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놓치지 않은 추억들이기도 하다. 내 생일을 화천댐이 내려다보이는 江村의 삼학산장에서 보

낸 것, 부산·포항등지를 누비던 것 등등.... 그러나 항상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기만 했으며 방향을 하면서 보내는 날들이 적지 않았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 모습이 보기 딱했던 meeting도 주선하고 女子소개도 시켜주고 하였지만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랬던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生에 대한 空虛感은 날로 더해 가기만 했다. 교회도 나가면서 성경을 읽기고 하고 어머니이 보시는 佛經들을 읽어 보기도 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諸行無常이란 단어와 함께 面壁한 高僧의 환상만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룬 적이 꽤 있었다.

7월이 되어 친구들과 實存主義에 대한 seminar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것을 공부하면서 Violin을 켜며 虛無感을 떨쳐 버리려 했다. 實存主義에 대해서는 교수님택에도 방문해 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 “實存은 本質에 앞선다.”는 말이 너무도 뚜렷이 뇌리에 남게 되고, 價値觀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cule가 되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나는 한번도 전체의 주체로서의 나, 나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를 찾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이즈음 나에게는 데미안과 에마부인과 같은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차츰 내 자신 알을 깨고 새로이 탄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7월이 다가고 있을 무렵 나는 또다시 충격을 접해야 했다. 아버님께서 나의 首席入學이란 허울좋은 명분아래, 수십년 간 봉직하시던 직장을 불명예퇴직하시고 그간 모르고 있던 우리 집안의 숨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알게 되었다. 물론 자랑스런 이야기이지만 큰 歷史의 물줄기와 民族의 運命이 우리집에도 들어 닥치는 느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에게 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버

님, 어머니를 전혀 색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한 달간은 나에게 술과 담배, 몇몇 따뜻한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으면 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 집에 있으면서 공부했던 단편들을 모아 글로 쓰기 시작했다. 實存主義와 辨證法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잘 것 없는 수필에 불과하지만 당시에 감정을 누를 길은 이 길 밖에 없는 듯했다. 8月末 나를 격려하며 위 원고를 ‘두개의 小考’란 題目으로 복사책자로 발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었던, 최정환, 유의선 두 친구에게 감사한다.

이제 休校가 끝나고 開學할 날도 며칠 남지 않게 되자 大學生이라는 신분이 문득 인시되었고 학교생활을 자신있게 대할 것 같은 느낌이 막연히 들어왔다. 그리고 人生이란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용출하면서 도대체 자유로운 삶이 어떤 것일까하는 vision을 그리기도 하고 내가 우리 國家·民族을 버릴 수 없는 만큼 그를 위해 어떤 일이 바람직한 것일까를 고려해 보기도 했다.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는 가운데 開學은 되고 이 때의 분위기는 1학기때와는 전혀 달랐다. 하지만 나의 가슴속에 虛無主義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베아트리체’를 만나 自我를 발견해 가게 되었고 그때까지 잊혀져 오던 나의 理想과 目標(어린 시절부터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내 一生을 두고 평범치 않은 어떤 일, 民族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宗教的 信仰과도 같은 理想이 하나 씩 되살아 나면서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나를 둘러싼 굴레를 벗고 그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 내의 사정, 나를 아끼던 친구들의 따뜻한 忠告, 베아트리체의 깊은 영향, 에마부인의 조언을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想到했을 때 辯

護士資格이 새삼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9월초경이었다. 물론 法大에 들어왔어도 법하면 檢事와 刑事被告人 밖에 聯想되지 않았고 民事訴訟이란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나에게 이런 매력은 단순히 매력에 그칠 뿐이었다. 이런 매력은 一面 나를 미정하게 하였지만 베아트리체를 만난 후에도 나를 지배하였던 虛無主義와 소위 의식있는 학생이 되려고 굴던 나의 知人들은 나를 몹시 망설이게 했다.

그러나 10월이 들어서면서 價値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價値觀이란 아직 나에게서 잡지 못할 파랑새이지만 적어도 몇가지 소극적 원칙은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즉 相對主義的 思考方式을 갖게 되었고 어떤 문제든 形式論理로 따지고 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다시 말해서 社會現狀을 구체적 실질적 요소를 통해 고찰하지 않고서 추상적으로 논리화시키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이 독단과 논리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革命이라든가 民衆과 같은 구호가 얼마나 오도될 수 있는 마취제와 같은 언어인가를, 어떤 것이 진정한 참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를 그 동안 괴롭히던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합리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無常이란 단어가 사람을 괴롭혔고 10월이 되어 늦가을의 향내를 느낄 때 이런 기분은 더해갔다. 그러던 중 내가 존경하던 한 친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그 친구로부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독실한 christian인 그는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항상 굳건히 지내며 나를 진심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마음을 열어놓지 않자 그 친구가 나에게 “너는 본심은 宗教的이니까 더 이상 너에게 전도하지 않

겠다.”고 예언적으로 단언한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 일 이후로 여러 계기가 겹치고 내 마음을 채울 겸 10월부터 비록 그 대상이 기독교의 神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수 일이 지나자 극히 신비그럽게 - 아직도 느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神이었던 내 내부의 ‘아프락싸스’였던 나 이외의 존재와 宗教的 體驗을 갖게 되었다. 그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나 諸行無常이란 덧없다기 보다 모든 것이 불변한 것이 없다. 즉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게 해 주었다. 이런 체험과 과정은 나에게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辯護士資格試驗은 일단 거쳐야 할 과정임을 깨우쳐 주었고 司法試驗應試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내 자신으로부터의 굴레를 가급적 빨리 벗기 위해 피하기보다는 넘어가는 方向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人生에 하나의 튼튼한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이다.

아울러 시험준비기간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가지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자는 결심으로 3학년때까지는 합격해야 겠다는 마음도 이즈음 가지게 되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하에 시험준비를 위해 하나, 둘 번거로운 일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베아트리체는 내 마음에 영원한 그리움으로 안착하게 되었으며...

### Ⅲ. 본격적인 수험준비

더 이상 내 신변잡기를 늘어놓는 것은 지면이 허용치 않을 것 같아 공부한 것을 중점적으로 써 나가겠다.

마음을 대체로 굳게 가진 것이 10월 중순을 조금 지날 무렵, 결심은 했지만 法學은 낌새도

못 맡아본 내가 공부하기란 막막하여 우선 선배들을 찾아가 얘기를 하였다니 모두들 말리는 것이었다. 별 도움이 없어 다른 방안을 생각하다 찾은 곳이 考試生 상담소였으나 무식한 반응을 보이다가 한번 합격기를 읽어 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때부터 선배, 동료등을 통해 考試雜誌를 빌려 合格記를 읽어 보았으나 3학년때 합격한다는 것은 차츰 불가능해 보일 따름이었다(당시는 선발인원도 100명 내외였고 最年少라고 하는 이들도 4학년이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당시 고승덕씨 合格記를 읽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친구들이 따뜻한 激勵의 말을 해 주었다. 결국 내 나름대로 공부해 보자는 게 마지막 결심이었다.

## 1. 제1차시험

우선 1981년 3월초에 있을 1차를 통과하자는 마음에서 10월 28日 친구 의선이와 종로서적을 들렀다. 어떤 책이 좋은지를 몰라 책방아가씨에게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종류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후에 생각하니 좋은 책들만 고른 것 같다.

基本方針은 1차시험중 基本 3法은 2차준비도 아울러 해야 하므로 기본서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문제집을 풀고 여타과목은 基本書를 1~2회독하여 전체 윤곽을 파악한 후 문제집위주로 보자는 것이다. 다만, 英語는 자신이 있어서 공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고, 經濟學은 원래 흥미가 있어 1학년 동안에 原論을 착실히 듣고 거시편도 보았으나 정리하는 의미에서 11月 한달 동안 行政考試學院을 수강을 하였다.

이런 방침아래 1차준비서적은 아래와 같이 구입했다(基本書+問題集)

1. 憲法(김철수+김철수, 문홍주 : 당시 헌법이 改正되어서 이 책은 12월에 들어서야 구입

할 수 있었다.)

2. 民法(곽윤직(1~4)+삼양사, 김용한, 김기수)
3. 刑法(유기천(총·각), 정영석(총론+정규백(上·下))
4. 경제학(조순(원론), 정운찬(거시)+정규백(上·下))
5. 국제사법 (황산덕·김용한+이근식, 삼영사)

文化史, 國史(문제집만 구입, 모두 삼영사 것으로) 基本 3法은 問題集을 두 권 이상씩 풀어 보는 것이 편중되지 않은 思考를 지닐 수 있을 것 같았고 文化史와 國史는 기본서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참고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별도로 서적을 구입치 않았으나 후에 박영사 간 文化史와 변태섭씨 국사책을 참조했다. 처음 계획당시에는 國史가 2차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法哲學을 선택했으나 81年 1月 초순쯤 시험과목 조정으로 1차과목이 되어 그때부터 준비했다. 英語는 틈틈이 TIME을 통해 익혔고 나중에 고등학교 참고서로 문법정리를 하면서 Vocabulary 22,000으로 단어정리도 했다.

도서구입이 끝난 후 12月까지는 基本 3法만을 2회독하자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11月은 아직 공부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또 1980년에는 休校其間이 길어 12월 23일까지 학교에 다녀야 했으므로 이런 계획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특히 民法은 어떠한 내용의 법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不動產 등기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 정도였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시 民法을 읽는 데에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도대체 法이란 行爲規範이라고만 생각하고 재판규범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12월까지 1회독만 하되 가급적



이해를 충분히 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독을 하였으며 책여백에 參照條文과 문제가 되는 점을 연필로 적으면서 보았다. 기본서는 한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려 노력했는데 특히 유기천 刑法各論의 判例들과 김철수 憲法의 判例, 外國學說들은 부담스럽고 이해도 잘 안되었지만 꾸준히 읽었다.

12월이 다 끝날 무렵 1회독을 하고나니 기분도 흐뭇하고 연말도 되어 친구들과 며칠 어울리다보니 1982년 시험공고가 났다. 막상 눈앞에 닥치니 초조해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大學 1학년 末고사가 1월말에 있게 되자 더욱 부담감이 컸다(휴교 때문에 학기를 연장해서이다). 1월부터 3월 20일의 1차시험까지는 가급적 집에 있으면서 공부했다.

1차시험까지는 과목당 기본서를 4회독정도(물론 연속으로), 문제집은 2권정도 볼 생각으로 책상 앞에 모조지에다 科目別進度表를 만들고,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어 1月中 아침시간에는 基本法을 돌아가면서 읽고(民法시간을 배로하여), 오후에는 기본서와 기본법문제집을 읽었는데 암기와 이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서를 읽은 해당부분의 문제를 풀고 다시 기본서를 보충하는 方法을 택했다. 저녁시간은 격일로 첫날은 경제학 기본서와 문제집을, 다음날은 學期末考查備를 했고(이때 心理學과 科學史는 범위가 모두 책 1권 분량의 原書여서 매우 부담이 컸다) 英語는 틈이 나면 머리를 식히는 정도로 했다(물론 期末考查準備에 英語가 필요한 과목이 많아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 基本法은 특히 法典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憲法條文은 거의 암기하였고 民法은 기본서만큼이나 法典을 열심히 봐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알게 되었다. 특히 친족상속법은 달리 基本書를 대할 시간이 없어 法典과 문제집에만 의존한 形편이었다. 학

기말고사가 끝나자 기말고사공부하던 시간에 國際私法과 문화사를 보고 經濟學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國史를 공부했다. 물론 다른 과목시간이 모자랐지만 基本3法은 이때 열심히 안해두면 2차시험을 볼 때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예상때문이었다. 문제집은 두 번 이상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겠다는 생각은 정신을 차리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러는 것이 신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7시간 이상은 잤고, 대신 밥은 조금씩 먹으면서 위와 머리회전에 부담을 덜 주려했다. 고시기간 중 1981년 이때가 제일 열심히 뫼뜨르고 공부한 때였다.

항상 내 오른팔이 되어 주었던 친구 의선이, 지금은 불미스런 일로 군대에 가고 없지만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이 기간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집에 찾아와서 학교얘기며 기말고사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내가 필요한 책을 사다주곤 한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집안 식구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보기 딱했던지 당시에 시험보는 것을 말리셨지만 계속 결심을 굽히지 않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집안일에 너무 무심해서 미안했던 생각이 든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형과 어머님께서 시험원서를 손수 사셔서 접수까지 시키시며 여러가지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고맙다.

이런식으로 2월을 보내니 긴과목 또는 기본서는 2회독 이상씩 하고 문제집을 1권이상 보아 1차에 어느 정도 감이 생기게 되었다. 곧 2학년 개학을 하였지만 1차시험이 목전이어서 그때까지만 교련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 있었다. 시험을 5월쯤 앞두고 기본서는 그만 읽었는데 이때까지 民法總則 4회독, 그 외 民法書 3회독, 형법총론 5회독, 각론 3회독, 헌법 4회

독이라는 내가 생각해도 놀랄만한 량을 읽었다. 5일 중 4 일간은 각 문제집 중 check 해놓은 부분을 검토하고 마지막 날은 기본법 法典을 훑어 본 후 푹 쉬었다. 시험전날 친구들한테 격려를 받고 또 지난 1학년 학교성적도 괜찮게 나와 다음 날 시험도 잘 치를 것 같은 생각으로 푹 잠을 잤다. 별 생각 없이 성동고등학교 고시장에[ 형과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고시노장들을 대해보고 매우 긴장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으나 그 감정은 문제지를 받고 이내 사라졌다. 이상하게 문제를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나오면서도 응시생들이 民法, 經濟學, 英語가 어렵다고들 했으나 나는 별 어려운 점 없이 풀어서 웬지 기분이 좋았다. 시험을 마치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후 목욕을 하면서 체중을 재었더니 그간 5kg나 줄었다. 하여튼 그날 저녁은 피곤하여 깊이 잠든 생각밖에 없다.

1차발표가 나기까지 4월 한 달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틈틈이 어렵다고들 하는 民事訴訟法冊을 읽어보기도 했다. 이미 基本法을 나름대로 공부한 상태여서 憲法의 김철수 교수님 民法, 刑法의 곽윤직, 강구진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담담한 기분으로 1차합격 발표를 들으면서 5월초에 있었던 2차시험에는 첫날인 國民倫理와 憲法만을 응시하여 분위기를 익히는데 그쳤다. 1차성적을 알아보니 평균 91.31점이란 점수를 받게 된 것을 알았고 누군가 首席점수라고 귀뜸을 해 주었다. 피식, 웃음이 나올 따름이었다. 헌법, 민법 형법은 각각 95점, 92점, 98점을 받아 법과목에 약간 자신이 생겼다.

## 2. 제2차시험

5월이 되면서 바로 2차시험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300명씩 합격자를 내니 천천히

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위로부터의 충고가 많았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왕 결심한 바 있으니 내년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합격하되 좋은 점수를 내겠다고 마음먹었다. 좋은 점수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나로서는 최소한(?)등 이내로 합격하리라고 내정하였고 내년의 시험에 실패할 경우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어쩐지 막연하나마 가능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 (1) 3가지 기본원칙

基本法은 공부하면서 법공부에 몇 가지 정립한 원칙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 매우 도움이 컸다.

첫째는 교과서에 소개되는 학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Kant는 ‘순수이성비판’에서 “理性的으로 思惟할 때 우주현상에 대해 正이란 결론을 내린다면 反이란 결론도 동시에 나올 수 있으므로 人間の 理性을 통해 객관적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다.”고 설파하였는데 이말은 法學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었다. 어느 한 논점에 적극설이 가능하다면 소극설도 推論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양극단의 학설이 정립된 이상 그 중간에 설치한 諸說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과서 속의 어떤 논점이 나오면 일단 가능한 견해들을 나름대로 상정한 후 결론을 내리고 나서 교과서를 읽으며 수정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둘째는 각개의 法에 반영된 法理念을 충실히 터득하려 했다. 가령 헌법, 행정법에서는 ‘기본권보장 vs 국가안보, 공공복리, 합목적성’ 민법에서는 ‘사적자치, 형식적정의 vs 거래의 안전, 공서양속, 실질적정의’ 등으로 抽出하였다. 어떤 제도나 法條文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

제점이 있으면 대개의 경우는 한 法體系內的 대립하는 法이념의 충돌이라 보고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론짓도록 하고 또 어떤 제도가 어떤 法理念을 구현했는지를 주시하려 했다. 또한 私法中에서도 民法은 去來의 안전보다는 私的自治를 우선 시킨 반면, 商法은 企業의 維持, 發展을 위한 去來의 원활화를 商社自治보다 우선시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대하여 갔다. 訴訟法분야에서는 항시 ‘實體的 眞實발견과 法的安全性 vs 訴訟經濟’를 염두에 두었더니 新訴訟物論과 舊訴訟物論의 대립도 쉽게 이해되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法理念에 조명하여 어떤 제도가 전체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밝히는 방법을 거시적 approach라고 내가 명령했으며 이와 반대로 개별적인 사건이나 논제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미시적 approach라고命名했다. 그리하여 어느 논점이건 양 방법을다 도입하여 생각한 후 양자의 충돌점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려 했다. 일례로 商法上 ‘株券發行前 柱式讓渡’(지금은 法改正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었다)에 있어서 우선 거시적 approach에 의할 때 제335조 제2항에서 이를 금지시킨 취지는 企業財産을 株券이란 現狀物로서 공시하여 형식적으로 확정한 거래를 피하여 거래원활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권의 공매를 통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축적을 쉽게 하여는 의도인 만큼 이 취지를 강행적으로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때 이 규정이 企業詐欺의 도구로서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등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상충하는 이익의 조화점으로 일정 기간 주권발행전을 강행한 후 그 이후에는 株券發行前이라도 株券讓渡가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셋째로 정립한 원칙은 Ehrlich가 말했듯이 ‘살아있는 法’으로서 各法을 공부하자는 것이다. 法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이 많은 법률관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民法을 공부하면서는 집에 비치해두고 있는 各種登記書類, 契約書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도 하고 外販員들의 契約書 등을 검토하면서 附合契約의 의미와 효력을 생각해 보기도 했으며 심지어 Bus를 타고 내릴 때 나의 행위 중 어느 것이 請約에 해당하는지 또는 승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기도 했다. 각종 行政官廳에서 告知書, 通知書 등이 날아오면 이것의 법률적 성질이 行政行爲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또 行政指導라면 그에 불복하는 행위는 어떠한 효력을 가질까를 생각했으며, 換地處分이나 都市計劃이 나오면 그에 관련된 法條文을 찾아 적법 절차를 따르는가를 주시했다. 또 決算日이 가까워지면 신문마다 貸借對照表, 柱式名簿閉鎖, 名義改書節次 공고를 내는 것을 보며 商法條文들을 되새겨 보았다. 특히 2학년 초부터 강독한 法律新聞은 여러 면에서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으며 특히 생소한 법과목을 보다 빨리 이해시켜 주었다.

## (2) 과목별 서적과 공부방법

이상의 원칙 아래 공부를 시작했는데 분량이 워낙 많아서 처음부터 기본서를 정독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한 후에 참고서로 보충하고 문제집은 최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만 썼다. 각 과목별로 약간씩의 공부방법을 달리하면서 최단 시일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였다.

### ① 公法(基本書+參考書+問題集)

(i) 憲法 : 김철수+권영성, 문흥주, 허영(憲法理論과 憲法(上))+박일경



(ii) 행정법 : 김도창+이상규, 서원우(上) 김남진(行政法의 基本問題)+김도창

공법분야는 애초부터 行政學, 國家學등 인근 社會科學分野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폭넓은 지식'을 얻으려 하였다. 따라서 저서는 시간에 쫓기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은 金哲洙 교수님의 것을 택했으며, 허영 교수의 著書주에 Smend의 同和的 統合理論에 대한 부분은 헌법의 전반적 이해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基本權부분은 김철수 교수님의 서적이 새로운 分野를 상세히 담고 있어 별 문제가 없었으나, 幸福追求權,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도적 보장부분등은 권영성교수님과 견해차이가 있어서서 권교수님책도 유심히 보았다. 統治構造部分은 전통적 입장에 따라 평이하게 기술하신 文 교수님 서적과 朴一慶교수님 문제집에 상당히 잘 나와 있어 시험을 보는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기본서를 제외한 參考書들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읽으면서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기본서의 부분과 완전히 다른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종이에 간략히 줄여 정리 후 기본서에 꽂아 두었다.

行政法의 기본서는 처음에는 보기가 어려워 이상규 교수님 것으로 1독한 후 기본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裁量行爲, 公法上 契約 등에서 새로운 이론을 많이 도입했고 판례를 충실히 수록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각주에 나온 立法例와 보충해설도 꾸준히 읽었는데 행정법 공부 때에는 서론부분 중 行政法의 이념과 英美 및 大陸法의 行政法 변천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 같다. 재량행위 부분은 이해가 어려워 고전하다가 시험보기 두어달을 남겨놓고 확실히 파악했다. 行政法 下卷은 1회독후엔 시간이 없어 公務員, 警察(秩序)行政, 公物, 公企業, 公用負擔부분을 기본서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문제집을 보았는데 하권공부시는 가급적

法典을 꼭 찾아보아 주요조문등은 확실히 이해하려 했다. 이상규 교수님 行政法은 英美의 이론을 많이 소개하여 大陸의 이론이 많은 기본서에 옮겨 적었고 서원우 교수님의 現代行政法論은 양은 많았지만 이론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좋았다. 시간이 많지를 않아 목차를 보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法規命令과 行政規則, 行政行爲, 行政計劃, 行政調查, 行政救濟法 등)은 정독후 별지에 요약하여 정리한 기본서에 합했고 특히 行政爭訟부분은 거의 이것으로 대치했다. 金南辰 교수님의 책은 裁量行爲, 多段階行政行爲, 부작위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소수설이지만 새로운 시야를 트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머지 부분도 틈나는 대로 읽어갔다.

## ② 民事法

(i) 民法 : 郭潤直(I~IV)+金容漢(總則) 金曾漢(物權·債總) 黃迪仁(債各)+金基洙(民法學演習) 삼영사+房禮源(民法基本判例, 육법사)

(ii) 商法 : 鄭熙喆(上, 下중 어음수표) 商法例解(保險, 海上) +서돈각, 정희철(判例敎材 어음수표法, 법문사) + 商法例解, 商法要論, 契承圭(고시연구사, 삼영사)

(iii) 民事訴訟法 : 宋相現+方順元, 金基源(論點中心 民訴法 考試研究士) +삼영사, 金禮源(判例實務 民訴法 육법사)

民訴法은 양도 많고 재미도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험기간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장 주의깊게 공부하였다. 특히 法條文이 裁判規範化된 부분이 많아서 확실보다는 판례를 철저히 보았다.

民法은 1차시험때 매우 관심을 두고 공부했고 그 양이 방대하여 다른 과목을 일단 정리한 후에 읽기 시작했는데 우선 物權과 債權總則

에 비중을 두어 보기 시작했다. 家族法은 시험에 별로, 출제되지 않는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한 나로서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말았고 다만 문제집으로 주요논점을 보충하였지만 債權各論 중 契約法은 總則과 賣買, 賃貸借, 組合, 和解 정도만을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독하는데 그쳤다. 民法은 워낙 역사가 오랜 학문이라 어떤 제도가 나오면 통시적으로 당해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주의깊게 보면서 이를 해석론과 연결시키려 했는데 기본서는 장황한 면이 있으나 이 점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듯 했으며 2학년 때 수강한 '로마法史'는 매우 도움이 컸다. 기본서를 읽으면서 너무 한편으로 만 견해가 치우치는 감이 있어 선배의 만류를 뿌리치고 시간이 걸려도 다른 책들을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잘한 일이었다. 金容漢 교수님의 總則은 家族法과 연결지어서 이해가 빠르게 되었다. 특히 代理와 時效부분은 매우 유익했다. 物權法은 金曾漢 교수님 책을 참고한 후부터 개념 정립이 되었는데 占有, 共同所有, 擔保物權 부분은 자신을 얻게 되었다. 黃迪仁 교수님의 債權各論(총론과 함께)은 새로운 이론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무리 책이 좋아서도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로서는 法律新聞이 나올 때마다 民法부분에 관한 判例解釋과 case 등을 잘 보았고 民法基本判例도 틈틈이 익히면서 책의 내용의 상기하기도 했다. case문제에 대비하여 구입한 金基洙 교수님의 책에는 뜻밖에도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몇몇 부분은 기본서에 이기하기도 하였으나 代理 代物辨濟, 賃貸借, 債務免除 등 새로운 이론이 많이 수록된 부분은 시험 전까지 훑어보았다. 여하튼 民法은 절대시간이 부족한 나에게는 끝까지 어려움을 안겨다주는 과목이다.

商法은 수험기간 중 매우 흥미를 갖고 공부

했는데 우선 어렵고 중요한 會社法과 어음수표 法부터 공략하기 시작했다. 기본서는 처음 공부하는 나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들게 쓰여 있어 서돈각 교수님의 책으로 전반적인 체계를 잡은 후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풍부하고 판례가 최신 것까지 실려 있어 좋았으나 정리하기가 까다로웠다. 商法例解는 매우 도움이 컸기 때문에 반드시 후배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전반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데 훌륭한 도움이 되었고 특히 會社法 부분 중 株式會社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잘 분석해 주었다. 商法, 保險法은 시간이 없어 商法例解를 아예 기본서로 하고 그 책에 없는 부분은 요론으로 보충해 가는 방법을 택했다. 어음수표법은 극히 추상적인 법이라 상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정희철 교수님의 판례교재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았는데 期限後背書, 背書에 관한 문제, 利益償還請求權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웬만큼 공부한 후 判例를 정리하기 위해 양승규 교수님의 商法事例研究을 읽었다. 어쨌든 商法 중 會社法은 團體法的 성격을 많이 띠고 大陸의 제도에 英美의 資本調達方法이나 理事會社制度등을 접목시킨 것에 주안을 두었고 어음수표法에서는 항상 原因關係와 단절시켜 어음 關係人 相互間的 團體法的 성격을 들어내려고 고심을 많이 하였다.

民事訴訟法은 후배들로부터 워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시간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있는 과목중에 하나가 되었다. 宋相現 교수님의 기본서는 판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처음에는 읽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당시에는 다른 기본서가 없어서 꾸준히 읽었다(요즈음은 李時濶 판사님의 책이 매우 잘된 것 같다). 기본서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方順元 선생님의 책으로 보충해 나갔고 후

에 金洋源 판사님의 論點中心을 통해서 좀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強制執行法 부분은 후에 삼영사 문제집과 論點中心에 나온 保全處分에 관한 기술을 읽는 데 그쳤다. 新訴訟物論에 대해서는 당시 관심을 두었으나 舊訴訟物論을 좀더 잘 이해해 두는데 그쳤다. 이 법이 실무를 통해서 가장 잘 운용된다는데 주안을 두어 판례를 가급적 잘 보았는데 절차법인 만큼 법적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는 되었으나 간혹 구체적 타당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또 法條文을 좀더 잘 보려고 노력했다.

### ③ 刑事法

(i) 刑法 : 진계호(總論) 유기천(各論)+유기천(總論) 장준철(총론) 刑事法講座(總論(上), 박영사)+삼영사 문제집, 강구진·유기천(형법 Case연구)

(ii) 刑事訴訟法 : 白亨球+정영석+정영석(법문사). 삼영사

刑法總論을 처음에는 유기천 교수님 것으로 보았는데 내용이 매우 흥미로 왔으나 시험보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진계호 교수의 저서로 바꾸었다. 目的的 因果關係, 社會的 行爲論, 機能的支配關係理論등에 처음에는 매료되었으나 차츰 너무도 관념적인 논쟁인 것 같은 인상이 들어 염증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적어도 總論에 있어서는 수 많은 학설들을 철저히 이해하는 근거로 위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 하나하나 뜯어 보기도 했으며 기출문제 중 case가 많은 것 같아 總論과 各論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刑法 case 연구’를 통해 기술방법을 알아두는데 노력했다. 또 刑法의 수많은 기초이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기 보다는 구체적 논점에 따라서 법감정에 맞는 것을 개별적으로 취했는데 예컨대 過失

犯에 있어서는 目的的 行爲論, 착오에 있어서는 主觀主義 이론, 共犯에 있어서는 共犯從屬性說, 共同意思上體說, 機能的行爲支配論등을 취한 것이 그것이다. 총론책에 소개된 우리나라 판례가 많지 않아 공부하면서 뭔가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刑事法講座’에 있어서는 結果的 加重犯, 過失犯을 비롯하여 몇몇 논문을 발췌해 읽었으며 그 외 논문들을 참조했다. 各論上에서는 不法領得意思, 刑法上占有, 文書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론상으로 문제될 것은 크게 없을 것 같아 해석론에 치중했다.

刑事訴訟法은 처음부터 어렵게 느끼지 않고 별로 흥미거리도 없어 좀 등한시 하여 후에 정리하는 데 상당히 고충을 느꼈다. 신현주씨의 刑事訴訟法을 읽었는데 산만한 감이 들어, 정영석씨의 것으로 바꾸었다가 시험은 3개월쯤 앞두고 白亨球씨 것으로 바꾸는 등 난항을 거듭했는데 결과적으로 최후의 선택이 좋았다. 책마다 많은 부분이 조문을 나열 해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가급적 法典을 정확히 봐두려고 노력했으며 證據法 부분은 문제되는 것이 많아 좀더 깊이 있게 공부했다. 수험을 3개월쯤 앞두고 아무래도 정리가 안되는 것 같아 삼영사의 문제집으로 정리한 것이 효과가 좋았다.

### ④ 國民倫理

國民倫理는 새로 도입된 과목이어서 교재도 마땅치 않았고 다른 법과목 공부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형설사 刊 國民倫理를 기본서로 하고 평소 신문과 잡지등에 실리는 관련 기사를 눈여겨 보았으며 후에 公務員倫理教材를 참조하였다.

### (3) 종합적인 계획과 행동지침

위에서 말한 시작들은 수험기간 중에 구입한 것도 많았지만 기본서와 대부분의 참고서를 일

팔 구입한 후, 5월에 들어서면서 짧은 수험기간 중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계획을 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맞추도록 하였다.

우선 책상 앞에 4절지를 3장 붙여 놓고, 첫째 것은 수험 전기간을 4부분으로 나누어 각 기별로의 목표를 표시했고, 두번째 것에는 기별의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짜보았으며, 세번째 것은 각 기본서의 책명을 나열하여 그 회독수를 빨간 줄로 표시하여 계획달성 여부를 한눈에 보게 하여 자극을 주는 동시에 각 과목 중 어느 특정과목이 취약하지 않고 고르게 공부되도록 견제역할을 하게 하였다.

수험기간은 4기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이름을 짓고 목표를 세웠는데 대학의 강의진도를 염두에 두어 중복이 안되도록 했다(후에 2차시험 일자가 2달반 가량 늦춰졌지만 애당초의 계획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1981년 5, 6, 7, 8월은 '기초확립기'라 하여 아직까지 생소한 行政法, 商去, 民訴法, 週訴法 등의 기본서를 적어도 基本 3法 수준까지 읽고, 3法 중에서도 좀 부족하게 느낀 憲法基本權, 民法物權法, 刑法各論을 읽도록 했다. 1981년 9월은 예비기간으로 남겨두고 2기는 1981년 10, 11, 12월, 1982년 1월까지로 하여 '실력제고기'라 이름 붙였는데 이 기간중에는 참고서와 잡지의 논문을 읽으면서 기본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지에 써넣으며 논문을 발췌하여 책 사이에 끼워두는 등 소위 단권화 작업을 하도록 했다. 논문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 行政法, 商去, 刑法, 訴訟法에만 국한시켰다. 1982년 2월~4월은 '실력재고기'라 하여 전기까지 공부하는 데에 부족했던 부분을 집중 공략하려 했고 나머지 기간은 '최종정리기'라 하여 이 기간 동안 전과목을 3회 통독하려 계획을 짰다.

이런 계획을 짜면서 몇 가지 행동지침을 마련했는데 우선 운동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1차시험을 준비하면서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운동시간 만큼은 공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키려 했다. 가끔이나마 Tennis 수영등을 하는 것 외에 매일 4km이상(집에서 제3한강교 내지는 근처 도산공원까지 왕복)조깅을 하였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옥상에서 줄넘기를 하였는데 2,000회 이상씩이었다. 처음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시작한 것이 지금은 습관이 되어버려 운동을 거르면 몸이 안 좋을 정도가 되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입시준비 때 위와 장이 나빠 오랫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식사에 도 매우 신경을 써서 절대 과식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둘째로 공부방법에 대해서 절대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힘들었지만 정독을 하고 주요한 부분을 암기하면서 읽어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어느 특정 과목에 과다하게 역점을 둔다거나 포기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애초부터 갖지 않고 가급적 골고루 공부하려 했다.

셋째로 잠은 충분히 잔다는 것이다. 최소한 하루 7시간정도는 자야 온종일 맑은정신에서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英語는 앞으로 쓰일 기회가 많을 것 같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관심을 두려했으나 이것만은 뜻대로 안된 것 같다.

수험기간 중 Stress해소가 큰 문제일 것 같아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술을 마시든가 Disco Teck에 가든 하려했으며 초기에는 이런 기회가 예상외로 많았다. 어쨌든 rough 하게라도 계획을 세우고 나서 Count down에 들어갔다. 글썄 그때 기분은 담담했는데 항상 내 좌우명인 盡人事待天命이란 문구를 마음속에 새겨두었기 때문이었을게다.



#### (4) Count down

기초확립을 위해 마련했던 5월~8월 중 우선 5월 한 달 동안은 民事訴訟法과 行政法(上)을 보았는데 혼돈이 일어날 것 같아 기본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는 참고서를 들추지 않았다. 民總과 刑總, 憲法은 학교강의를 충실히 들으면서 보충을 하였다. 6월이 되면서는 마음이 많이 헤이해져 하루걸러 술이 있으나 보름쯤 지난 후 정상궤도를 다시 찾았지만 그 여파가 꽤 오래 지속되어 일요일이면 오래 못보던 친구를 불러 내기 일수였다. 1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전방군사교육을 마치면서 다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읽은 책들은 1차때 공부한 것 외에 民事訴訟法 2회독, 行政法 2회독, 商法 2회독, 刑訴法 1회독이었다.

방학이 되면서 집에서만 공부하는 것은 능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혼자있는 것 보다 주위에서 자극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선배의 소개로 소위 고시촌이란 곳에 들어갔으나 도저히 생리에 맞지 않고 분위기가 산만한 것처럼 느껴져 이틀 만에 나왔다. 그러다 집 근처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 도서관에 우연히 들어가 보았더니 매우 마음에 들어 이곳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곳 수위아저씨와 이내 친하게 되어 그 후 수개월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이용했다.

가끔 친구들과 Tennis를 치기도 했으며 Stress가 쌓일 때면 Violin을 켜기도 하면서 충실히 방학중엔 공부할 수가 있었다. 도서관에서는 저녁시간에 맞추어 귀가한 후 Jogging으로 몸을 가쁘하게 한 후 근 11시까지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개 Apart 근처 배밭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통금때까지 술을 마시며 생각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 친구를 부르거나 간혹 누나나 형이 같이 어울렸는데 포장마차에서 파

는 특주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포장마차집 아저씨가 나를 잘보았는지 매우 잘 대해 주고 공짜로 술과 안주를 준 적이 꽤 많았다. 방학이 끝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포장마차집이 철거되게 되었는데 그때 주인 아저씨는 내가 法大에 다니는 것을 알고 순박하시게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으나 아무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안타깝다.

방학중과 개학한 후 9월 한 달 동안은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에 투자를 꽤하였는데 民事訴訟法, 物權法은 기본서에 참고서를 옮겨적는 방법을 택하고 行政法은 서원우 교수님 책을 장별로 임의로 선택하여 보면서 기본서에 정리했고 商法 중 會社法과 어음·수표법은 참고서와 判例教材를 정리했다. 참고서들은 시간상 1회이상 읽기가 힘들었으므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서에 정리했으며 양이 너무 많은 것은 기본서에 참고서의 페이지를 기인하여 같이 읽도록 했다. 정리가 용이하도록 미리 일정한 규격으로 종이를 잘라 그곳에 요점을 쓴 후 기본서에 끼우는 방법을 택했다.

10월이 되자 실력제고를 위한 기간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이 몹시도 중요하여 공부방법을 달리했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학교가는 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표를 신경써서 짰으나 10월부터는 이것마저도 꽤 부담스러워져 일주일 중 제일 수업이 많은 이틀만 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했다. 하루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을 위해서 왕복 3시간을 소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나를 무척이나 도와주었던 최정환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 몇 과목은 논문정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9월말쯤 考試雜誌 과월호(1980년도부터)를 종류별로 구입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잠시 망연자실하다가 우선 논문정리를 위한 노

우트를 작성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이틀쯤 시간을 내어(그때 이들은 나에게 엄청난 시간이었다) 논문정리가 필요한 과목들을 우선 순위 대로 써 보았는데 노트를 8부분으로 나누는 후 과목마다 장을 세분하여(예컨대 民訴의 경우는 法院, 當事者, 訴訟의 開始, 심리, 判決 등으로) 고시잡지의 목차를 보면서 논문제목들과 그것이 실린 책표지를 각 장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그 후 기본서로 일정한 장을 읽을 때면 미리 위 노트를 훑어보아 읽을 필요가 있는 논문들을 찾아 표시하고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부터 읽고 정리하였다. 매우 유익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논문들은 대개 속독위주로 읽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참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요약정리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은 과목당 6~7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서에 끼워두었다.

이 기간 중은 하루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前 시간에는 논문정리를 하고 後 시간에는 참고서를 읽지 못한 과목들에 대해 기본서, 참고서를 같이 읽어가며 이른바 단권화 작업을 하였다. 단권화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점은 시험직전에 정리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너무 분량이 많지도 않지만 너무 요약하여 내용을 모르는 불상사도 막는다는 면을 다 고려하면서..., 논문정리는 12월까지는 商法, 刑訴法, 刑法, 行政法, 民訴法順으로 해 나갔으며 기본서는 1981년 11월까지 憲法, 民訴法, 商法(上), 行政法, 商法(下), 刑訴法 순으로 읽으며 단권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12월 들어서는 論點中心 民訴, 民法學演習, 商法事例研究 등 흥미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刑訴와 債權總論, 民總, 債各, 物權法 순으로 회독을 하였다.

10월 중순까지는 계획대로 침착하게 진행시켜 나갔지만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오자 여러모로 외로움을 느꼈다. 그동안 꽤나 절제하여 왔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베아트리체를 만나 보았다. 그러나 시험이란 굴레가 이미 씌여진 나로서는 충전처럼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또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학년때부터 괴롭히던 虛無主義가 다시 살아나는지 10월이 다갈 무렵 나의 정신상태는 이미 고시생의 그것이 아니었다. 친구 정환이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다시 찾아보기도 했으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혼자 바바리를 걸치고 인천 앞바다로 간 적도 있었고 전철을 타고 수원으로 떠난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의 행동이 조금만 더 지나쳤더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마저 든다. 거의 4~5일을 헤맨 후 낙엽이 거의 떨어질 무렵 경복궁에 혼자 있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공부를 꼭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마음 깊숙히 치밀어 오르면서 벤치에 앉아 내 아프락싸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는 호소를 하여 보았다. 이 가운데에서도 “너는 꼭 합격할거야, 그리고 합격후에다 바라는대로 될 거야.” 라는 누구의 말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았다. 그때 한없이 들던 未完成交響曲과 Rachmaninoch의 Piano concerto 2번은 ..... 도대체 결심의 힘이 이리도 큰 것인지 10월말의 방황이 차츰 정리될 수 있었는데 나의 아프락싸가 또 한번 도와준 느낌이다. 그후로는 오직 공부에 정열을 바칠 수 있었는데 2학기말 고사가 다가오면서 대학에서 수강하는 한 과목에 대해 결석을 많이 하여 김중한 교수님께서 점수를 좋게 줄 수 없다고 경고하셨다. 그 교수님 덕에 3차례나 다니면서 백배사죄하여 겨우 약간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 과목 덕분에 2학기 성적은 예상만큼

그리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그분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중에 한분이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혼자 공부하기가 외로운 느낌이 들어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했으나 1월 초 시험을 연기한다는 공고가 나오자 2달 차이지만 잠시 허탈한 기분도 들었다. 한 일주일간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어울려 Stress을 푸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으나 차츰 연기된 기간을 좀 더 알차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한 달은 그간 등한시한 國民倫理를 보아 나갔는데 처음에는 분량이 많은 대왕사 것을 보았고 특히 共產主義 批判부분을 눈여겨보았다. 그 외 保險·海商·行政法(下), 債權法, 強制執行, 家族法등을 별 부담없이 읽어갔다. 공부에 대해서 내가 오래전부터 새기고 있던 또 하나의 좌우명, ‘學問如逆水行舟不進則退’ 라는 어구를 생각하며 1월을 보냈는데 이 기간 중 틈틈히 읽은 許營 교수님의 ‘憲法理論과 憲法’은 헌법 뿐만 아니라 법 전반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되었다.

1982년 2월부터 실력재고를 위한 기간을 마련했는데 4월까지 전과목을 최종적으로 정독할 계획을 세웠다. 3학년 1학기 때는 지난학기 결강으로 곤란을 겪기도 했고 또 강의들이 도움이 될 것이 많을 것 같아 학교수업에 충실히 들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시간수가 부족하여서 2, 3, 4월중 실질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날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총 17권에 달하는 책에 대해 분량과 난이도에 따라 읽을 날짜를 개별적으로 분배하였다. 또 학교까지는 가급적 좌석버스를 이용하여 차안에서도 책을 볼 수 있게 했으며 수업시간에는 철저하게 수업에 집중하여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정리하려 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하면서 의심이 나는 문제는 강의 후에도 교수님께 계속 질문하여

해결하려 했는데 會社法과 民訴法을 강의하시던 송상현 교수님과 行政法의 최송화 교수님을 꽤나 괴롭혀 드린 것 같다. 1학기 동안 송상현, 최송화, 양승규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도움이 컸다.

4월경에는 단국대에서 이시운판사님이 민소법특강을 하셔서 꾸준히 들었는데 너무도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셔서 이때부터 民訴法을 오히려 고득점 과목으로 여기게 되었다. 학교강의와 특강 중 필기한 것은 잘 추려서 기본서에 계속끼워 넣었다.

이 기간은 마지막 정독 간이라 생각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후에 정리할때 어려움을 덜려했다. 학교수업을 들으면서 보게된 김상원 판사님의 判例實務 民訴法은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 시기에 白亨球씨 것으로 바꾼 刑訴法은 잘 바꾼 것 같았다. 또 고시잡지마다 실린 과목별 학설·판례정리를 정리삼아 보았다. 시험을 목전에 앞둔 나로서 시험을 연습할 데라고는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밖에 없었으므로 실전과 같이 항상 열심히 임했다.

이 기간중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가 결혼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바쁜 집안일을 크게 못도와 주었던 것이 못내 미안하다. 내 시험에 방해가 될까봐 조금이라도 결혼날짜를 앞당기려 한 누님과 내 뒷까지 집안일을 거들어 준 형님께 감사한다. 하여튼 누나 결혼을 전후하여 ‘함’이 들어오고 친척들이 몰려와 오랫동안 기본전환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5월이 들어서면서 마지막 최종정리기에 대한 구상을 하였다. 시험 보름전까지 전과목을 한번 통독하고 문제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기본서의 부피를 늘리려고 하지 않았다. 전 기간의 일자를 책상 앞에다 적어놓고 하루하루

의 양을 적어 시간낭비를 막았으며 이때부터는 하루 6시간 정도로 수면을 줄이기 시작했다. 각 과목별 문제집과 함께 잡지의 예상문제 등을 보며 정리를 했는데 항상 당해 답안에 구애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다시 답안을 구성해 보았다. 민사법, 공법, 형사법순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차츰 이때부터 Stress가 쌓이기 시작했는데 내 실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비교해 볼 사람이 없어 초조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대로 학교수업은 계속 나갔는데 마지막 2주일쯤은 도저히 힘들어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 기간 중 나를 도와주셨던 김유성, 최송화 두 교수님과 과장홍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학교에 가지않는 시간은 대개 집에 있었는데 온가족 특히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공부분위기를 잡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다. 손님들도 가끔씩 정리 하시고 워낙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서 집안청소를 아침·저녁으로 하시는 어머님께서도 내 방만은 내가 쉬는 동안 잠깐 청소하시는데 그쳤는데 시간이 종종 안맞아 청소안하고 지내는 날도 며칠 있었다. 이런 식으로 7월이 될때까지는 다시 1회독할 수 있었다.

7월초에는 학기말고사가 있어 나에게는 무척 부담스러웠으나 연습을 한다는 기분으로 착실하게 임하면서 공부가 부족한 國民倫理와 民法을 보충하였다.

학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 몸이 무척이나 약해졌음을 깨달았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시험까지 열흘! 민법만 이틀을 잡고 나머지는 하루에 한과목씩 시험순서와 역순으로 읽어가고 國民倫理와 憲法은 첫날시험이라 사흘간 공부했다. 이때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동안 꾸준히 하던 운동도 그만두고 아침에

마루에 나가 push-up과 토끼땀정도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날씨도 더운데다 Stress도 몹시 쌓인 탓도 있으나 매우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삼일 지난 후부터는 도대체 잠이 안왔다.

처음에는 수면제도 복용했으나 소용이 없어 이틀간 계속 하루 2시간 이상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초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자 어머님께서 지압사를 불러오셔서 이틀간 지압을 받은 후 겨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이 동안 어머님께서 나를 위해 매일 불공을 드리러 절에 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런식으로 시험 전날까지 전과목을 모두 읽었는데 그날따라 배탈이 나서 하루종일 설사를 하였고 때문에 할 수 없이 3시간동안 영양제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시험기간중 하루에 그 다음날 볼 과목들을 모두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待天命한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 (5) 시험일

시험기간동안 계속 사용할 만년필 2자루와 잉크를 준비해 한과목당 만년필 하나씩으로 답안을 썼다. 초안지는 되도록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는데 초안은 최소한 10분이상 구상했고 아무리 아는 문제가 나왔더라도 초안지에 개략적인 목차를 써넣어 논점을 빼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시간은 큰 문제는 45분, 작은 문제는 각각 25분씩 투입 하였고, 10분은 초안작성에 나머지 5분은 검토하는데 투입했고 분량은 4장 2장 2장씩 맞추어 쓰려 했다. 작은 문제가 아무리 자신 있는 부분에서 나왔더라도 이 제한을 초과하지는 않으려했고, 다른 노장 수험생에 비해 지식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서론을 충분히 써주는데 치중하여 이를 만회하려 했다. 서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논점에 대해 거시적·미시적 approach를 동



시에 시도했고 당해 제도가 반영하는 법이념을 끌어 내는데에 애썼다. 시험기간 중 어머님과 형님이 시험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끝날 때 데리러 오곤 해주어서 매우 고맷다.

① 國民倫理(54점, 소수점이하 점수는 기억이 희미해 생략한다)

문제가 펼쳐질때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1번 문제로 「南北韓의 리념과 체제 비교」는 I. '共產진영과 自由民主진영의 기본적인 차이' II. '이념의 비교' III. '체제의 비교' (정치, 社會, 文化, 경제로 세분) IV. '결론 남한의 우월성'으로 목차를 정하여 어려움없이 썼는데, 2번의 (1) 「民主主義 發展과 政治文化」는 별로 쓸말이 없어 당황하다 한국적 정치문화와 한국식 민주주의의 관계를 유추하여 I. '民主主義 發展의 諸요소' II. '民主主義 발전과 정치문화의 관계' III. '한국의 정치문화와 民主主義' 순으로 써나갔다. (2) 「동학의 基本思想」은 국사실력을 동원하여 무리없이 평이하게 써 나갔다.

② 憲法(56점)

헌법문제 중 큰 문제는 평소 유심히 봐왔던 「憲法保障」이 나와서 I. '序論'으로 헌법의 본질을 쓰면서 헌법의 참탈가능성을 쓰고 그 이후로는 기본서대로 II. '憲法保障의 方法' III. '우리나라의 헌법보장' 순으로 썼는데 II에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던 감이 든다. 2의 (1) 「制度保障과 基本權保障」은 처음에는 양자의 구별을 쓰는 줄 알고 구상을 했으나 그것보다 좀더 포괄적인 문제인 것 같아 I. 序論에서 양자의 개념을 쓰고 II. '兩者の 區別'을 쓴 후 III. '양자의 관계'란 제목을 썼으나 쓸말이 생각이 안나 고심하다가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어떠한 영향을 갖는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 후에 참고서를 찾아보니 유사하게 되어있어 놀랐다.

③ 行政法(64점)

하루 시험을 치루고 나니 조금 자신이 생겼는데 펼쳐진 행정법문제들 역시 평소에 유심히 보아둔 부분이어서 유쾌하게 썼다. I. '行政行爲取消權의 制限'은 기본서와 유사하게 I. '取消의 개념' II. '取消權제한의 必要性' III. '制限의 형태' IV. 結論순으로 무리없게 썼고 2의 (2) 「公用制限」은 시험보는 날 아침 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새로워 법조문까지 찾아가며 써주었다. '抗告訴訟의 訴의 利益'은 평소 많이 공부한 것이지만 문제의 요구가 狹義의 訴益인지 廣義의 訴益인지 고민하다 안전하게 당사자 적격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택했고, 나아가 결론에서 不作爲訴訟 등과 관련하여 소익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④ 商法(64점)

상법문제가 펼쳐지자 크게 당황했으나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도무지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것은 2의 (2) 「어음·수표지급인의 조사의무박에 없었는데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르리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구상을 했다. 초안을 짜는데만도 20분이나 소요되었다. (1) 「商業정부와 計算書類」는 법전을 뒤적이면서 근거조문을 확실하게 찾은 후 원래 I. '개념' II. '작성上의 비교' III. '적용법 위의 비교' IV. '效果上의 비교' V. '違反時의 效果' 등 주로 양자를 비교하려 했고 당시 유심히 봐두었던 商法改正試案의 내용을 써넣어 칸을 메울 수 있었다. 2의 (2) 「失權抹」 역시 기본서에서 개념정도는 본 기억이 있지만 내용이 생각이 안나 法典을 뒤적이며 I. '意義와 根據' II. '發生原因' '失權절차' IV. '失權의 效果' 순으로 조문

을 정리한 후 나름대로 해석을 가미했는데 失權株의 발생원인 3가지 중 하나를 빠뜨린 것을 알고 상당히 고민했었다.

#### ⑤ 民法(54점)

1번은 case로 나왔는데 주요 논점이 履行補助者에 관련된 해석론임을 알면서도 관련문제를 빼놓지 않으려고 使用者責任, 失火責任에 관한 법률까지 들먹이면서 논점을 늘어놓아 산만한 감이 있었다. 2의 (1) 「民法上 人的結合類型」은 2학년 期末考査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자신을 가지고 社團法人, 법인격없는 社團, 持分的組合, 合手的組合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2의 (2) 「物上代位」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어 고심하다가 기억을 더듬어 I. 「物上代位の 개념과 이를 갖는 權利」 II. 「物上代位の 本質」(학설 對立) III. 「物上代위가 미치는 權利」 IV. 物上代位の 效力 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본질에 대한 학설소개를 약간 잘못소개한 것 같았다.

#### ⑥ 民訴法(60점)

원래 자신있던 과목이었고 문제들도 눈에 익었던 것이어서 새로 음미해보지 않은채 썼는데 이것이 오히려 감점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다. 1. 「辯論期目的 當事者缺席」는 I. 「당사자 결석의 문제점과 각국의 제도」 II. 「當事者雙方의 缺席」(雙不取下와 故障申請) III. 「當事者一方의 결석」(對席裁判과 擬制自白) 순으로 썼는데 제도의 이론적 고찰보다 오히려 암기하고 있던 판례를 모두 다 쓰려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2의 (1) 「訴訟行爲의 追完」도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했고 2의 (2) 「自白의 取消」는 나름대로 정리해 두었던 것을 토대로 썼는데 단편적으로 소개된 判例를 종합하여 I. 「自白의 意義와 本質」 II. 取消의 요건 III. 「自

白取消의 方法과 時期」 IV. 「取消의 效果」 V. 「擬制 自白의 取消」 순으로 썼다.

#### ⑦ 刑法(64점)

사흘째 시험보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그전 날 다음 시험과목을 한 번씩 넘겨 보았다(다만 民法만은 총칙물권까지 밖에 못보았다). 마지막날이라 그런지 잠이 쏟아져 왔지만 pitch를 올려 刑法과 刑訴法을 한번씩 볼 수 있었다. 형법1. 「共犯과 身分」은 기본서에 기술된대로 별무리없이 썼고 2의 (1) 「恐嚇과 詐欺의 異同」은 2학년 기말고사에 유사한 것이 출제되어 이를 유추해서 I. 「各罪의 概念과 本資」 II. 「故意의 異同」 III. 「行爲의 異同」 IV. 「違法性的 異同」 V. 「기타」로 무리 없게 썼고, 2의 (2) 「傷害罪同時犯의 特例」는 문제집마다 나와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기술했다.

#### ⑧ 刑訴法(60점)

1. 「自由心證主義」는 별로 쓸말은 없었지만 교과서마다 기술해 놓았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에 맞추어 썼고, 2의 (1) 「當事者出席없이 裁判할 수 있는 경우」는 평소에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I. 「刑事裁判에서 當事者出度の 意義」 II. 「檢事の 출석없이 裁判할 수 있는 경우」 III. 「被告人의 出席없이 裁判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고 마지막 것은 암기하고 있던 9가지 사유를 법전과 대조하면서 썼다. 마지막 한 문제는 「接見交通權이었는데 먼저 법전에서 관련조문을 철저히 찾아내고 기본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쓰려 했으나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빨리 쓰고 뛰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接見交通權의 侵害와 救濟」라는 중요한 논점을 빠뜨리고 답안을 작성하였다.

시험을 마치고 나니 왠지 기본이 좋았다. 그 후 발표까지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 했다. 사정회에 들어가신 교수님께서 몸소 합격여부를 알려주시고 점수는 59.89점으로서 석차는 5등이라고 귀뜸해 주셨다. 5등이라는 사실에 약간 흐뭇했으나 허탈감이 엄습해 왔다. 별로 합격했다는 실감이 안났으나 아버님, 어머님께서 괜찮은 성적으로 합격한 데에 매우 기뻐하시고 주위 친구들이 너무도 축하를 하여주어 차츰 합격의 기쁨을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노력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 IV. 苦盡甘來

합격한 이후 나의 대학생활은 너무도 값진 것이었다. 국제법학회활동을 통해 두차례의 모의재판을 하고, 4학년때는 이수성 교수님의 도움아래 ‘靑少年의 法意識’에 대해 현지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들고 뛰어다녔으며 3학년때부터 國際去來에 관심을 두어 양승규 교수님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다닐수 있었다. 사무실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학과공부에 치중했는데 특히 國際公法, 國制去來法, 稅法, 經濟學 등에 매우 흥미를 느꼈고 英語에도 치중하여 공부했다. 외무부선배들과 토론회를 자주 열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많이 벌였다.

시험합격 후 주위에서 다른 고시도 응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으나 애당초 뜻한 것 외에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일에 매달렸다. 어쨌든 대학 4년을 청산하면서 首席卒業이란 값진 선물을 받게 되었다. 더 이상 대학생활을 장황하게 쓴다는 것은 원고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 같아 몇 마디 사족을 남기면서 끝맺으려 한다.

나는 괴롭고 약해질 때면 Brahms의 폭발적인 曲들을 듣는다. 그로부터 얻어지는 자신감

을 내면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일게다. 허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생을 일관하는 Theme을 관철하는 그의 모습에 나의 영상을 투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나만 홀로 광야에 서서 이상을 소리 높혀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의 가슴속에 공허감과 소외감을 진동시킨 때도 있었으나 항상 시련이후 나에게 고독감이상의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목표에로 일보전진할 수 있는 성취감이었다. 이러한 속에서 나는 願力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으며, 願力이 나에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참된 의지와 힘을 주었다. 오늘도 정열을 쏟는 많은 同途諸賢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願力을 세우라는 것이다. 수없이 깨어지더라도 목표는 달성시키리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상은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고시가 모든 것은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은 될지언정 그에 안주하고 마는 나약한 사고방식은 제발 버려 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세대이다. 고시는 할일을 해야 할 기초와 토대에 불과하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험기간 중에도 이것만은 명심하여 공부했으면 한다. 아울러 모든 문제 특히 요즈음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大學自律化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도 절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은 배제해 달라는 것이다.

어쨌든 두서없는 글을 맺을 때가 된 것 같아 적어도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苦盡甘來라는 것이 철칙으로 지켜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Brahms 1번 교향곡을 듣는 지금 폭발적인 격정과 감정을 다시 한 번 맛보며 이 글을 마친다.